

2025 01
제240호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대덕구 홈페이지 E-BOOK으로 연결됩니다.

대덕 라이프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2024 대덕구 사진공모전 - 모던 더 대덕 수상작
해맞이 웃음소리 - 노희완씨작

대덕 라이프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대덕라이프 제호 서체 : 글고운 캘리그래피 박진희 作

- 02 좋은글, 좋은 시
- 03 대덕구청장 신년사
- 04 대덕구청장 인터뷰
- 05 걸어서 대덕속으로
- 06 [대덕구기관장협의회] 박윤수 대전대덕우체국장
- 07 대덕구 맛집을 찾아서
- 08 열린의정
- 10 [인물 인터뷰] 허송해 송촌동 허씨한의원장
- 11 대덕톡톡

버 팀 목

정 임 순(시인, 대덕문화회 회원)

내게 주어진 삶
불어오는 폭풍우
기꺼이 맞으며 살아가 보자꾸나

스무고개 놀이하듯
한 가지씩 넘어가며
한 가지씩 풀어헤치며
살아가 보자꾸나

여염집 여인보다
더 풍요롭고
향기로운 삶을 향해

어두운 이 시간도
그리울 때가 있을 거라 위로하며

스스로를 위한 버팀목 되어
다독다독 마음을 다독이며
대견하다고
잘 견뎌왔다고
토닥토닥 여원 등을 두드려 본다



발행인 대덕구청장
편집인 기획홍보실장
발행처 기획홍보실(TEL:608-6603 / FAX:608-3811)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홈페이지 www.daedeok.go.kr
발행일 2025년 1월 6일(제240호)

* 대덕라이프에 게재되는 시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됩니다.

신년사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 새해에는 더욱 뜻깊고 행복한 일들로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어려운 경제·취업·생활 등의 상황으로 힘겨운 시기를 견뎌내고
계신 모든 분에게 희망과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5년은 민선 8기 구정 운영의 결실을 맺는 시기입니다. 대덕의 도약과 성장, 그리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실을 위해 구민 여러분과 함께 새해에도 거침없이 달려 나가겠습니다.

올해 구정 운영 방향은 △대덕의 웅비를 위한 신성장 도시 기반 마련 △누구나 살고 싶은 생활인프라 구축
△자연과 전통, 문화가 숨 쉬는 명품 도시 조성 △저출생·초고령사회, 전 생애 맞춤 복지 구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가겠습니다.

2025년 새해에 임하는 대덕구 공직자의 각오를 담은 사자성어로 ‘감은대덕(感恩戴德)’을 선정했습니다.
구민에게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대덕발전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구민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새해 첫 발걸음을 떼려 합니다.
어려운 경제 사정과 구정의 난제들을 지혜롭게 헤쳐 나가며
신중하게 변화를 도모하고 대덕을 재생하겠습니다. 힘찬
발걸음으로 약속 사업을 추진해 풍성한 결실을 안겨 드리며,
대덕의 즐거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에도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열심과 노력으로 대덕의 내일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협력과 실천이 대덕의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웃음, 기쁨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대덕구청장



을사년 새해, 2025

최충규 대덕구청장을 만나다

“구민 모두의 너무나도 당연한 희망 ‘잘사는 대덕’을 만들기 위해 단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씬 없이 달려왔습니다”
2022년 7월 민선 8기 출범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변화와 성장의 대덕구정을 이끌어 온 최충규 대덕구청장이 그간의 소회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구민들에게 약속한 사업들의 알찬 결실과 응비하는 대덕을 만들기 위한 핵심 현안 사업 완성을 위해 열정을 쏟아내고 있는 최 대덕구청장을 만나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를 맞아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를 들어봤다. <편집자주>



구청장 취임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간의 성과를 간략히 소개한다면?

경기둔화 등 구정 운영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2024년 10월 말 기준 총 45개의 공약사업 중 25건의 공약사업을 완료해 77.7%의 이행률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주신 구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민선 8기 구정 운영의 결실을 보는 시기인 만큼 사업추진을 더욱 가속할 것입니다.

올해 구정 운영 방향을 말씀해 주신다면?

올해는 대덕의 도약과 성장, 그리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실을 맺는데 초점을 두고 구정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대덕의 응비를 위한 신성장 도시 기반 마련 △누구나 살고 싶은 생활인프라 구축 △자연과 전통, 문화가 숨 쉬는 명품 도시 조성 △저출생·초고령사회, 전 생애 맞춤형 복지 구현 등 총 4개 분야로 나눠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성장 도시 기반 마련의 핵심 내용을 설명해 주신다면?

우선, 대덕 신성장의 심장 역할을 할 ‘연축지구 도시개발 구역’에는 신청사 건립을 비롯해 유통, 공동주택 등 기반 시설 조성을 통해 응비하며 성장하는 대덕의 100년 미래 기초를 다질 것입니다. 여기에 대전 디지털 물 산업 밸리 사업으로 연축·신대·회덕역을 연계해 산업·교통·행정이 어우러지는, 이른바 자급자족형 신도시로 재탄생시킬 것입니다. 이밖에 △경부고속도로 회덕IC 연결 도로 개설로 과학벨트와 세종시 연계 교통망 확충 △신문교 개설(신대동~문지동 연결) △장동~이현 간 도로개설 사업비(248억원)반영 확정에 따른 조속한 도로개설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풍부한 생활인프라 구축 사업을 소개해 주신다면?

▶대덕구 거점지역별로 복합문화체육시설이 순차적으로 확충됩니다. 비래동 길치근린공원에 수영장, 생활문화센터 등을 갖춘 복합문화센터가 오는 7월 완공될 예정이며, 회덕다목적 체육센터와 목상동체육공원도 2026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신탄진역 인천공항버스 정류소가 올 상반기에 설치되며, 법동 소류지 경부고속도로 통과박스 확장 사업도 공사를 앞당겨 진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밖에 △교육부 공모사업인 새일초 학교복합시설(수영장·도서관·돌봄 특화시설 등)건립 △오정동 일대에 들어서게 될 대전시 대표도서관 건립 △대덕구 아레나 복합문화시설(기존 리틀 돔 야구장 사업 업그레이드)건립사업 등도 가시화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분야 핵심 추진사업을 설명해 주신다면?

전국적인 축제로 발돋움한 대덕물빛축제는 경제·문화적인 효과를 높여 대덕만의 브랜드로 확립해 나갈 것이며, 김호연재 문학관 건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계족산 시민공원 프로젝트는 숲속의 집, 캠핑장, 숲 카페 등이 포함된 휴양림을 조성해 관광자원으로의 가치를 높이는 한편 대청호 생태탐방로조성, 대청고 보행로와 조명 분수 등 설치 등을 통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밖에 지난 2020년 국가등록 문화재로 지정된 대전육교의 명품화 사업을 구체화하고 관광 명소로 조성해 대덕의 가치와 격조를 높이겠습니다.



대덕구 복지정책의 핵심 방향과 주요 추진사업을 소개해 주신다면?

대덕구는 저출생·초고령사회를 맞아 전 생애 맞춤 복지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추진사업으로는 ‘대덕형 마을돌봄서비스’를 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돌봄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퇴원환자돌봄 △채움돌봄(방문목욕)등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또, 아이 키우기 좋은 대덕구를 만들고자 △여성친화도시 실현 △어린이집 환경개선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365일 24시간 당직 체제 운영 등 보육 관련

정책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밖에 △마을과 학교의 교육공동체 네트워크로 학생의 건강한 진로·직업 체험 등 다양한 혁신 프로그램 운영 △ 위기 청소년 지원과 청소년 주도 문화 성장을 돕는 상담복지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을 대표하는 사회복지망으로 K-돌봄 대표도시 대덕구의 위상을 더욱 굳건히 하며, 구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를 맞는 각오를 말씀해 주신다면? 설날이 다가오고 있다. 구민분들께 새해 인사와 덕담 한마디 해주신다면?

올해는 민선8기 구정 운영의 결실을 구민분들께 풍성하게 안겨 드려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진 해입니다. 오로지 대덕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취임 당시 초심을 잊지 않고 값진 성과물과 웅비(雄飛)의 나래를 활짝 펼치는 대덕의 미래를 위해 분골쇄신(粉骨碎身)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엄중히 약속드립니다.

변화, 지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을사년(乙巳年)새해가 밝았습니다.

구민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풍요와 번영의 기운이 넘치고 건강과 행복으로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새해를 맞은 기쁨과 함께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고향길 안전하게 다녀오시고 가족과 함께 풍성하고 넉넉한 마음을 전하는 설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걸어서 대덕속으로

산디마을 및 오토캠핑장

대전시 대덕구 산디로 190(장동 685-1)에 위치한 산디마을은 ‘계족산 뒤편’에 있는 마을이란 의미를 품고 있다. 계족산 가장 위쪽 골짜기에 위치해 도시 생활 속에 잊혀가는 고향 뒷동산의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산디마을 일대는 탐제, 산신제, 성줏굿, 일노래 등 독특한 민속문화가 남아 있어 ‘민속문화의 보고’로도 일컬어지고 있다. 특히, 1998년 7월 21일 대전시무형문화재 제5호로 지정된 산디마을 탐제는 정월 대보름

전후로 마을의 대동신에게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비는 민간 토속신앙의 하나이다.

이곳에 조성된 캠핑장은 산디마을의 옛이야기와 계족산 황톳길을 가까이서 바로 즐길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잠시나마 도심의 삶에서 벗어나 마음껏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제격이다.

<참고자료> 대덕 역사·문화 관광포털 및 대덕 관광안내도



대덕구기관장협의회 박윤수 대전대덕우체국장



초등학생 때 어버이날, 스승의 날 또는 친구의 생일에 편지를 써보거나 중, 고등학생 당시 정성이 가득 담긴 감성 넘치는 연애편지를 써본 추억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시절 온종일 무거운 우편가방을 옆에 끼고 한집 한집 편지를 넣으시며 다니시던 우편집배원은 항상 고마운 아저씨이자 친한 이웃이었다.

2025년 새해를 맞아 대덕라이프 편집자는 우리 지역의 우편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박윤수 대전대덕우체국장을 만나 우체국의 역사와 주요 역할, 그간의 활동 상황, 향후 운영계획, 대덕에 대한 개인적 소회 등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박 윤 수
대전대덕우체국장



Q. 먼저 대한민국 우체국의 역사와 대전대덕우체국의 연혁과 주요 역할 등을 소개해 주신다면?

대한민국 우체국은 1884년 우정총국을 시작으로 140년의 오랜 역사와 함께 국민들에게 소식과 행복을 전달하는 모범적인 정부 기관입니다. 전국 3300여개 촘촘한 창구망을 통해 편지와 소포우편물을 농어촌 및 도서벽지까지 접수·배달하는 것은 물론 △예금·보험 등 금융서비스 제공 △비상시 재택치료키트 배송 등 사회 안전망 제공 △우체국쇼핑을 통한 소상공·농어민의 지역 특산물 판로지원 △폐의약품 회수 등 기타 공익적 역할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품질 우정서비스를 제공해 옴으로써 공공부문 고객만족도(KCSI)평가 26년 연속 1위를 달성하는 모범적 정부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6년 8월 1일 개국한 대전대덕우체국은 더 빠른 우편서비스, 더 편한 금융서비스, 더 넓은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산하 7개 우체국과 7개 우편취급국을 두고 있습니다. 총 170여 명의 직원 모두는 대덕구 주민들에게 우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깊은 사명감으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Q. 우체국에 근무하시면서 실제 느끼는 어려움과 보람이 있으시다면?

우체국은 국민들에게 보편적서비스 안정적 제공과 다양한 공적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자체 수입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출하는 특별회계입니다.

즉, 고품질의 우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시설 등 비용지출을 위한 재원 마련이 필요함에도, IT의 급속한 발달로 우편 사업의 주 수입원인 통상 우편물이 해마다 큰 폭으로 줄어 우편 적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구분·운송·배달 등 작업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소포우편물은 늘고 있지만 적자해소 한계로 인원, 차량 등 장비를 적기에 확충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집배원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곳은 날씨에도 이륜차로 우편물을 배달하기 때문에 매일 안전운행을 기원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조직의 성공은 팀워크가 중요하므로 평소 원활한 소통으로 팀원 간, 선·후배 간에 신뢰를 쌓아 연·병가 등으로 많은 유고가 발생해도 모든 직원들이 불평 없이 힘을 모아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지난 10월 중에 퇴직 준비 휴가자 및 미끄럼 등 안전사고로 집배원 9명의 장기간 공석이 발생해 총괄국장, 우편물류과장 등 책임직이 솔선해 우편물 배달지원을 함으로써 팀워크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Q. 대전대덕우체국 주요 성과와 함께 취임 이후 역점 추진사업 및 계획을 말씀해 주신다면?

대전대덕우체국은 우정사업 성과 향상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한 결과, 지난 2023년도에 충청지역 4급관서 경영대상, 전국 4급관서 우편사업 연도대상, 전국 4급 관서예금사업 연도대상을 수상하는 등 유례없는 3관왕(Triple Crown)영예를 안았습니다. 저는 지난 2024년 7월 1일자로 취임해 7개월째 근무하고 있으며, 우선 직원복지 증진을 위해 오랫동안 중단된 구내식당을 부활했습니다. 특히, 보다편안한 식사분위기 조성을 위해 한남대학교 미술학과 학생들의 재능기부로 벽화 그리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우체국과 협업을 통해 상생발전을 꾀할 수 있는 사업 파트너(Biz-Partner)를 발굴해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대덕구가 대전시 외곽에 있지만, 대화동과 문평동에 대단위 산업단지가 조성돼 있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테마를 발굴·추진함으로써 우수기업 육성과 우정사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Q. 지역사회 봉사 및 사회공헌활동의 대표적 사례 몇가지 소개해 주신다면?

우리 대전대덕우체국에서는 지난 2023년 3월 30일 대덕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위기의심 가구를 대상으로 '복지등기우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가가호호를 방문하는 우체국 집배원이 홀로 어르신 등 어려운 이웃 50가구의 주거환경과 생활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대덕구청에 회신하면 위기가구 여부를 파악해 맞춤형 복지혜택을 연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또, 지난해 연말에는 지역 내 어려운 이웃 주민들에게 따뜻한 식사 지원을 위해 대덕구에 있는 (주)성경식품과 협업해 김 1만 3000봉을 기부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다양한 행복 나눔 봉사활동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Q. 끝으로 대덕구민에게 하고 싶은 말씀과 당부사항이 있으시다면?

지역 주민들에게 우체국 배달을 사칭한 금융사기(보이스 피싱) 사례가 끊이지 않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예전에는 ARS 전화로 우편물 도착 및 반송과 관련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더니, 최근에는 우편물 도착 통지서를 위조하거나, 집배원을 사칭해 카드 우편물 배달지 확인 명목으로 개인정보 요구 또는 휴대폰에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해 모든 정보를 탈취하는 등 수법이 날로 다양화 및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우체국에서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으신 경우 가까운 우체국에 문의하거나 경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지역의 **맛집**을 찾아서

소갈비살과 닭갈비의 절묘한 만남 오정동 '소계팅'

- 대전 대덕구 오정로 78번길 27 1층(오정동 89-6)/ 042-622-1557
- 한우육회(200g) 2만3000원, 소갈비살(400g) 4만2000원, 양념소갈비살(150g) 1만6000원, 숯불닭갈비(200g)·숯불닭목살(200g)·매콤닭목살(200g) 각 1만3000원, 육회비빔밥+된장찌개 1만1000원, 된장술밥(사장님밥) 6000원
- 영업시간 : 16:00~22:00
- 정기휴무일 : 매주 일요일



소갈비살과 닭목살. 얼핏 보면 어색한 조합 같지만, 이 2가지 고기류를 환상의 커플로 만들어 고객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맛집이 있다. 대전 대덕구 오정동 행정복지센터 지척(咫尺)에 위치한 ‘소계팅(대표 김경모)’이다.

음식점 이름도 가축인 소(牛)와 닭(鷄)에서 각각 한 글자씩 따온 이곳은 소갈비살은 일반·양념 2가지로, 닭갈비·닭목살(일반·매콤) 등 3가지로 나눠 손님들이 쉽게 메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무엇보다 숯불닭갈비·닭목살은 먼저 1차 초벌구이를 해서 손님상에 내놓는다. 그래야 금방 구워지는 소갈비살과 함께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초벌구이를 마친 닭갈비를 손님상의 둥그런 석쇠에 올려놓으면 은은하게 타오르는 숯불 열기와 향이 한껏 식욕을 끌어올린다. 여기에 고기주문 시 함께 나오는 파리고추와 가래떡, 새송이버섯 등을 살짝 구워 고기와 곁들여 먹어도 좋다.

특히, 소계팅만의 특제 소스는 담백하고 쫄깃한 닭갈비의 풍미(風味)를 한껏 높이고 있다.

김 대표는 “소금, 마늘, 간장, 청양고추 등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평범한 재료를 사용해 소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각 재료의 배합이 조화를 이뤄 최적의 맛을 내는 레시피 개발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을 뿐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집은 반찬 또한 풍성하다. 상추 겉절이, 청경채 장아찌, 궁채, 마늘쫑, 겨자소스 곤약면, 명이나물, 따끈따끈한 철판 계란후라이 등 본 메뉴가 나오기 전 테이블을 가득 채울 정도다.

이뿐만이 아니다. 소계팅은 쫄면, 청국장, 잔치국수 등 사이드 메뉴가 본 메뉴 못지않게 뛰어난 맛을 자랑하며 손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후식으로 아이스크림도 무료로 제공하는 등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 감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소계팅의 매력은 오로지 김경모 대표의 남다른

노력에서 나왔다.

올해 42세가 된다는 김 대표는 10여 년 전부터 농수산물 등 식자재 업체가 밀집돼 있는 이곳 오정동에 자리를 잡고 식자재유통업에 종사했다고 한다. 그는 고기를 손질하는 작업부터 식자재 배달, 양념 소스 개발 및 유통과정 등 말 그대로 바닥부터 차근차근 다져갔다.

김 대표는 이 같은 노력을 발판 삼아 신탄진에 소규모 육가공 및 소스제조 업체를 오픈한 데 이어 약 4년 전부터 자신이 직접 손질하고 개발한 고기와 소스를 기반으로 소계팅을 운영하고 있다. 오정동체육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복지만두레와 대덕구체육회 등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경모 대표는 “내 가족에게 차려주는 밥상처럼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음식점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젊은 만큼 신메뉴 개발 등 발전적 도전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바다의 우유’ 굴 요리 전문점 오정동 '청정원식당'

- 대전 대덕구 대전로 1044번길 71(오정동 454-27)/ 042-637-8380
- 점심 예약정식(간장게장) 1만5000원, 굴정식 2만5000원(2인이상, 굴회·굴전·굴밥), 굴밥 1만2000원, 명게비빔밥 1만5000원
- 영업시간 : 10:00~22:00
- 정기휴무일 : 매주 일요일(사전 예약 시 영업 가능)



대전 대덕구 오정동 한남대 철길 육교 아래 한적한 주택가 작은 골목을 걷다 보면 전혀 음식점이 있을 것 같지 않은 장소에 숨겨진 ‘노포(老鋪)’ 청정원식당(대표 서유선)이 있다.

이곳은 수십 년 된 가정집을 개조해 허름한 외관에 작은 매장이지만 오래도록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로컬 맛집으로 굴정식과 간장게장 정식이 손님들이 즐겨 찾는 메인 메뉴이며, 철저한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겨울이 시작되는 11월에서 이듬해 2월까지 입맛을 돋우는 제철 음식인 굴은 단백질 중에서도 필수 아미노산, 칼슘 함량이 많아 ‘바다의 우유’라고 불린다. 특히, 피로회복제로 알려진 타우린이 함유돼 간 기능 강화에 좋고 숙취 해소에도 탁월해 애주가(愛酒家)들이 즐겨 찾는 해산물이다. 이와는 달리 물컹물컹한 식감과 강한 향 때문에 호불호(好不好)가 많이 갈리는 식재료 중 하나가 굴이기도 하다. 따라서 손님들이 싫어하는 부분을 얼마나 제거, 보완하느냐에 따라 굴 요리 솜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청정원의 굴 요리는 단 한 조각의 군더더기도 없을

정도도 깔끔한 맛이 일품이다. 그래서 이곳 청정원에는 지난 수십 년간 지역의 전·현 국회의원 및 광역·기초단체장 등 전국 각지의 유명 인사들이 종종 찾아와 음식 맛을 즐기고 있다고 한다.

메인 메뉴인 굴정식은 굴회, 굴전, 굴돌솥밥 세 가지로 구성된다. 특히, 청정원식당은 겨울철뿐만 아니라 사계절 내내 시원하고 영양가 높은 굴 요리를 맛볼 수 있게끔 경남 통영 앞바다에서 갓 따올린 굴을 매일 아침 택배로 공급받고 있다.

이 집이 철저한 예약제를 고집하는 이유는 매일 아침 들어오는 신선한 굴을 사용해 굴회, 굴전 등의 음식을 만들어 손님상에 내놓기 위해서다. 굴의 강한 향을 제거하기 위해 갈아놓은 무에 굴을 담가놔다 씻는 등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손질 작업을 해야 한다. 더욱이 굴을 손질해 놓으면 손의 체온으로 굴의 온도변화가 시작돼 신선도가 떨어진다고 한다. 더 많이 파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정성이 담긴 요리를 손님상에 올리고 싶다는 청정원식당의 운영철학 느껴지는 대목이다.

굴회는 통영 앞바다의 향기로운 바다향과 제철을

맞아 통통하게 살이 오른 싱싱한 굴의 맛이 그대로 전해지고, 굴전 역시 굴의 식감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잡스럼 없이 깔끔한 맛을 선사하고 있다.

특히, 굴돌솥밥은 대추, 당근, 표고버섯 등의 건강한 식재료와 함께 밥 지을 때부터 굴을 가득 넣어 제대로 된 굴의 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청정원의 또 다른 별미인 직접 담근 간장게장, 봄철 메뉴인 명게비빔밥도 손님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 등의 정기후원 및 음식 대접 봉사 등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꾸준한 선행을 펼치고 있는 청정원식당은 현재 조명희·배호순 두 명의 베테랑 한식 요리사와 서유선 대표 등 세 명이 한 몸처럼 환상의 호흡을 맞추며 고객 중심 음식 만들기에 온 정성을 다하고 있다.

이들은 한결같은 목소리로 “‘모든 요리는 내 형제, 내 부모, 내가 먹는다는 생각으로 정성을 다합니다.’라는 청정원식당 운영철학을 변함없이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신년사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덕구의회 의장 전석광입니다.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목표하신 일 모두 이루시고 아쉬움 없이 행복하셨기를 바랍니다. 올해에도 지혜와 변화의 상징인 뱀의 해를 맞아 더 많은 행운과 행복 그리고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현재 불확실성에 따른 혼돈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해 지속되는 경제 위기에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적 경제 풍파를 겪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강경 관세 정책 등과 맞물려 올해 더 큰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거듭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지러운 국내 정치 상황도 당혹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계엄령 사태’에 이어 ‘탄핵 정국’ 속 국민의 고통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공포는 항상 무지에서 온다고 합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정국이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를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뱀이 탈피를 통해 묵은 껍질을 벗겨내고 새롭게 태어나듯, 우리는 푸른 뱀의 해를 맞아 희망을 이야기하고 가능성을 외칠 것입니다.

우리 대덕구의회가 그 힘찬 발걸음에 가장 앞장설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2022년 6월 구민의 선택을 통해 권력을 위임받은 뒤로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구민과 지역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데에 한 치의 주저함이 없었다고 자신합니다. 과정과 결과가 구민의 기대에 다소 미치지 못한 적이 있었지만, 구민을 위한다는 우리의 의지는 단단하고 선명했습니다.

올해 역시 분명합니다. 더욱이 개원 3년 차를 맞아 구민을 위한 헌신과 봉사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의회와 의원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해 구민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 성의를 다했을 때, 조화와

균형 그리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올 한해 지역에 희망의 빛이 내리고 도약할 수 있도록 선명한 발걸음에 나서겠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가정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대덕구의회 의장 전 석 광



기고

대덕구의 디지털 전환 전략

조대웅 부의장

사회 모든 분야에서 ‘디지털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기술 혁신은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스며 들고 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 기업과 정부는 앞다투어 디지털 전환에 따른 대응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 대덕구가 취해야 할 디지털 전환 전략에 대해 세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 번째, 디지털 전환 전략은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다.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대덕구는 현재 모바일을 통한 공문 안내, 민원 접수가 가능한 ‘OK! 대덕’ 앱과 모바일 채납 안내문 알림 서비스,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스마트 돌봄 서비스와 AI 케어콜 등 디지털 기술을 선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여기서 만족할 것이 아니다.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정부에 제안하고, 지원을 끌어내야 한다. 대덕구 공직자들의 적극 행정으로 대덕구만의 새로운 디지털 정책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두 번째, 디지털 전환 혜택이 소외된 계층 없이 고르게 분배될 수 있도록

디지털 교육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밀반침돼야 한다. 앞서 대덕구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을 통해 무인민원발급기, 키오스크 활용법 등 상황별 시뮬레이션과 체험학습을 진행한 바 있다. 참가자들이 디지털 기기 사용을 배우며 자신감을 얻었다는 만족감을 표한 만큼, 지속적인 교육 진행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디지털산업 인프라·자원의 수도권 쏠림 현상 극복을 위해 지방에 경쟁력 있는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디지털 혁신 거점 시범사업’에 공모해 대덕구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 수자원 공사와 함께하는 ‘대덕 물관리 디지털 트윈 혁신 지구’를 조성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앞선 세 가지 제안이 반영된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마련해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된 디지털 문물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대덕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돼, 타 지자체보다 발 빠르게 디지털 전환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덕구의회 2025년 사자성어 ‘동심공제’

대덕구의회는 새해 의정방향을 담은 사자성어로 ‘동심공제(同心共濟)’를 선정해 발표했다.

동심공제는 ‘마음을 같이해서 함께 건너간다’란 뜻이다. 이는 2025년 새해에 구민과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희망찬 미래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선정은 의원을 비롯해 직원 등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전석광 의장은 “2025년 을사년 새해에도 희망 대덕구를 위해 동료 의원뿐 아니라 의회 공직자 모두 성심성의를 다해 구민을 섬길 것”이라면서 “구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구민의 마음을 더 헤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의원별 의정활동 (행감·구정질문)

대덕구의회는 제28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해 집행부 감시와 견제를 비롯해 현안에 대한 질의와 제언에 나섰다. 특히 의원들은 각자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구민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감사와 질의를 벌였다. 다음은 의원별 주요 행정사무감사 사항과 함께 구정질문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조대웅 부의장

행감 불법 폐기물 관리 강화=환경오염과 인명 피해 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 폐기물에 대한 관리 강화 당부. 조 부의장은 “지정폐기물은 관리 주체가 환경부(금강유역환경청)지만, 지역 발생 불법 폐기물 투기가 우리 구랑 관련이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강조. 이어 “지자체 관리 대상인 건설·사업장 일반폐기물뿐 아니라, 지정 폐기물도 환경부 등과 협조해 불법 폐기물 투기 근절에 힘써달라”고 주문.

구정질문 디지털 전환 대응 전략 마련 주문=디지털 전환 전략 구상 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이용이 가능한지 △디지털 전환에 따른 혜택이 소외된 계층 없이 고르게 분배될 수 있는지를 염두에 뒀야 한다고 제언. 그러면서 “우리 구가 디지털 전환을 대비해 향상된 구민 삶의 질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디지털 문물을 삶 속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추진하는 등 타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



양영자 의원

행감 품격 더한 신청사 조형물 설치 당부=신청사 조성과 함께 설치될 조형물에 품격을 더해 달라고 당부. 양 의원은 “아무도 찾지 않는 모 지자체의 조형물은 무모한 발상과 측은한 결과에 왠지 모를 숙연한 마음마저 든다”며 “전문가에 의한 공평·투명한 심사를 통해 대덕구의 정체성과 더불어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품격 있는 조형물 선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거듭 요청.



유승연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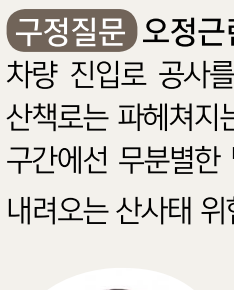
행감 석봉도서관 휴관일, 평일로 조정해야=유 의원은 “지역 3개 공공도서관 중 석봉도서관은 일요일을 휴관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주말에만 시간을 낼 수 있는 직장인들이나 가정의 경우 도서관 이용이 제한된다”고 밝히. 이어 “목적과 취지를 고려했을 때 주말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여가와 문화생활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휴관일 변경을 고려해 달라”고 주문.

구정질문 신청사 건립 재원 확보에 만전 강조=특히 재원 마련에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는 ‘공유재산 매각 계획’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역설. 유 의원은 “현 청사 매각은 신청사 건립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에 결코 안일하게 생각할 수 없다”면서 “현 청사의 매각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업 추진이 늦어질 것이 자명한 일”이라면서 대전시가 현 청사를 매입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계획 마련도 요구.



김기홍 의원

행감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적극행정 필요=특히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기준 완화를 요구. 현재 지정 기준인 2000㎡ 내 소상공인 운영 점포 30개 이상을 운영 점포 수 25개로 완화하자는 내용.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시설 현대화 등 지원 등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라면서 “적극행정을 통한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를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생태계 구축에 힘써달라”고 당부.



박호서 의원

구정질문 오정근린공원 사업, 경사면 산사태 위험=김 의원은 “공사 차량 진입로 공사를 위해 250여 그루의 오래된 나무가 베어지고 기존 산책로는 파헤쳐지는 등 산림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히. 특히 “사업 구간에선 무분별한 벌목으로 산 경사면이 약해져 토사와 암석이 무너져 내려오는 산사태 위험성이 커졌다”고 주장하며 선제적 예방 관리를 요구.

행감 대덕물빛축제, 선택과 집중 필요=박 의원은 “축제 기간이 길면 방문 기회가 있는 것은 맞지만, 그건 축제장을 찾은 만큼 매력적인 콘텐츠가 있을 때 가능하다”면서 “차라리 기간을 줄이고 임팩트 있게 축제를 구성하는 데 더 힘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 이어 “관 주도의 기획과 운영이 아닌 주민들이 함께 만들고 즐기는 축제가 되기 위한 고민도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여.

구정질문 신탄진역 서측주차장은 지역 핵심 인프라=박 의원은 “신탄진역 서측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신탄진역을 이용하는 주민과 방문객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 등 문제로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이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 이어 “단순히 주차 공간을 확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신탄진역과 연계된 지역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여.



이준규 의원

행감 현안 해결 위한 적극 소통 주문=대덕구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대전시의회 등과의 공조 체계를 점검. 이 의원은 대덕구의회와 대전시의회 간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소개한 뒤 “현안 사업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우리 구의 입장에서 소극적인 태도가 보여 아쉬움이 컸다”며 “현안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갖고 주민 대표기관인 의회와의 적극적 소통에 나서달라”고 강조.

구정질문 공공도서관 확충 계획 정상 추진 당부=이 의원은 “공공도서관은 교육·문화·복지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며,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의 중요한 자원”이라면서 대덕구에 건립 예정인 대전시 대표 도서관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 그러면서 “공공도서관 확충을 통해 주민이 가까운 거리에서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면 대덕의 문화 가치가 두 배로 높아질 것”이라고 역설.



김홍태 의원

행감 석봉동 주차장 확보 당부=신탄진 재정비 촉진지구 내 주차장 신설 관련 진행 절차 확인.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신탄진전통시장은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대덕구 명소”라면서 “자가용을 이용하는 타지역 관광객들은 주차할 곳이 없어 문제”라고 소개. 그러면서 “불법주정차된 차량에 의해 인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재정비촉진지구 계획을 변경해 석봉동 일원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라며

“주차시설이 부족한 것을 고려해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위한 노력에 나서달라”고 당부.

남을 돕는 즐거움, 조인위락(助人爲樂)의 삶을 살다

허송해 송촌동 허씨한의원장

36년간 2억900만원 기부... 누적 기부액 3억원 달성 목표
수익금 기부는 물론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 위해 무료 진료도
가난으로 힘들었던 성장기... 나눔과 베품의 삶 다짐해
“남을 돕는 것이 나를 돕는 것...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실천 가능”



허 송 해
허씨한의원장



각박한 사회 속에서도 ‘그래도 아직 살만한 세상이다’라는 긍정적 반응이 꾸준히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삭막한 이 세상에서 자신의 것을 나누며 어려운 이들을 섬기는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위치한 허씨한의원 허송해(66) 원장은 수십 년간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료 진료는 물론 자신의 수익금 일부를 꾸준히 기부해 오는 등 베품과 나눔을 적극 실천해 오고 있다.

특히 1988년 대전 동구 대동에서 한의원을 개원한 허 원장은 2024년 연말까지 2억900만원을 기부했다고 한다. 어느덧 60대 중반을 넘어서신 허송해 원장은 앞으로도 변함없는 나눔의 마음으로 누적 기부액 3억원 달성이 목표라고 한다.

그의 기부 대상자도 다양하다. 처음 한의원을 개업했던 대전 동구 대동과 송촌동 지역의 소외계층 지원 및 청소년 장학금 지급은 물론 청소년 쉼터 등 사회의 그늘진 곳도 살피고 있다. 또, 자신의 고향 모교인 광주 중학교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한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월드비전, 성남이로운재단 등 구호단체 등에도 꾸준한 후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의원이 자리한 송촌동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어려운 환경의 학생에게 매년 200만원씩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3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하기도 했다.

장학금 지급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는 허송해 원장은 “학생들이 경제적 여건을 넘어서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하고 싶습니다. 넉넉한 비용은 아니지만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로 성장하는데 자양분(滋養分)이 되길 기원합니다”라고 말했다.

허송해 원장이 이처럼 남다르게 적극적인 나눔의 삶을 실천하게 된 배경에는 가난으로 힘든 성장기를 거쳤기 때문이다. 전남 광주에서 농사일을 하시던 아버지가 불의의 화상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시면서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고, 어머니가 허드렛일로 생업 전선에 나서셨지만 5형제 등 여섯 식구가 먹고 살기엔 턱없이 부족했다고 한다.

허송해 원장은 “가난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60~70년대에 청소년기를 보낸 분들은 저와 비슷한 경험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5형제 중

장남인 바로 위의 형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족들의 부양을 위해 남의집살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결심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돈 벌면 절대 혼자 잘 살지 않고 베품의 삶을 살아가겠다고...”라며 말을 잊지 못하고 눈시울을 붉혔다.

허 원장은 자신이 36년간 기부활동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남을 도와주는 걸 낙으로 삼는다’라는 조인위락(助人爲樂)의 인생관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허 원장은 “심신이 건강하니 한의원을 열심히 운영하고, 돈도 계속 더 벌게 되니까 더 많은 사람을 위해 기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겁니다. 세상을 함께 나누고 보태는 일로 제 인생을 닦아 가고 있지요. 여기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부활동을 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 하나를 제시했다.

‘施恩不求報(은혜를 베풀어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 즉,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남을 도와주는 것이 나눔과 봉사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이다.



허송해 원장은 “세상은 함께 살아가는 곳이기에 아픔이 있는 이들에겐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나눔과 봉사’는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을 겪는 이들과 ‘같이 가고 싶은 마음’입니다”라며 “금전적 여유나,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손잡고 갈 따뜻한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말했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허송해 원장은 대동에서 한의원을 운영할 당시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했다. 식당산 등산을 하면서 쓰레기 줍기 활동을 꾸준히 펼쳐 왔는데, 검정 비닐봉투에 쓰레기를 담다 보니 어느날 등산객들이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해 가는 것으로 오해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이후 그는 양파망으로 쓰레기 수거 봉투를 바꿨다고 너털웃음을 지으며 이같이 말했다. 허 원장의 꾸밈없는 순수한 마음이 그대로 엿보인 대목이다.

모든 이웃과 함께 나누고 행복을 일궈 나가기 위해 내민 그의 손길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지는 1월이다.



노로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 요령

쌀쌀해진 날씨와 함께 찾아온 노로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 요령 함께해요~

노로바이러스란?
감염력이 강하고 저온에서도 생존해 겨울철에서 이듬해 봄(11월~4월)까지 주로 발생하며 감염되면 설사, 복통, 구토 증상이 나타남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요령

- 비누를 사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씻기
- 종사자 의심증상 발생시 조리참여 금지
- 세척·소독 등 조리시 위생관리 등 예방수칙 준수
- 노로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접촉했던 문 손잡이 등을 주기적 소독
- 구토물 등 처리시 비말로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
- 유아 등 감염 증상이 있는 경우 등원 자제

집단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관할 보건소 및 위생과에 신고해주세요!

한파, 대설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2024. 11. 15. ~ 2025. 3. 15.

허위 성적 영상물 딥페이크 명백한 범죄입니다.

딥페이크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를 합친 말로,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인공지능 기술(AI)을 이용해 특정 영상에 합성한 가상 편집물을 의미합니다.

처벌규정

- 1.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2.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희롱물의 제작·배포 등)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영상을 발견한다면?

- 1. 딥페이크 사진·영상을 발견하거나 피해를 받았다면 즉시 신고하기
학교 : 배임교사, 담당교사, 학교안전담당관(SPD)
112 경찰청 : 사이버범죄신고센터,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1377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1366 여성긴급전화, 성범죄상담 120
www.kccsc.or.kr
- 2. 혼자 고민하지 말고 믿을만한 자원기관에 신고하고 삭제 요청하기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 : 전화 : 02-735-0904, 홈페이지 : 04u.stop.kr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 신고 : 전화 : 국번없이 1377, 3번, 홈페이지 : www.kccsc.or.kr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기관 : 서울 : 02-016-0362, 인천 : 032-917-5170, 경기 : 1544-0112, 부산 : 051-802-2082

다 함께 더 건강하게 대덕구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셀프 홈트 운동 소도구 대여

2025. 1. ~ 2025. 12.

대상 대덕구민

대여료 무료

대여품목 운동매트, 폼롤러, 요가링, 밴드, 스텝박스, 덤벨, 미니짐볼, 짐볼, 필라테스링 등

대여기간 3달(1인기준)

대여방법 품목당 1인 1개 대여 (*대여기구 소진 시 대여 불가!)

대여장소 대덕구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 187, 5층

신청방법 전화 및 방문 예약 신청(운영시간: 평일 09:00~18:00)

문의전화 대덕구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042-608-5417, 4474



2025 대덕 물빛 축제 주민참여 공모

축제 주민참여 공모

공모기간 | 24. 12. 23.(월) ~ 25. 1. 13.(월)

공모분야 프리마켓 부스(판매·체험)
대덕구 지역 상품관
프린지 무대
고래 관련 굿즈·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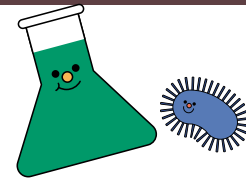
공고문 대덕구 홈페이지 - 규정소식 - 고시공고

세부내용 공고문 참고

신청방법 신청서 방문 및 이메일 제출 / guswn9803@korea.kr

결과발표 25년 2월 중 / 선발자에 한하여 문자 또는 전화 연락

문의처 대덕구 문화관광체육과 ☎042-608-6733



과학수사대, 도서관에서 생긴 일

과학수사관이 되어 실험을 통해 과학수사 원리를 알아보자!

●일 시 : 2025. 1. 14.(화)~1. 17.(금) / 10:00 ~ 11:30

●대 상 : 초등 3~4학년 15명(2024년도 학년 기준)

●장 소 : 석봉도서관 어린이강의실

●수강료 : 무료(재료비 2만2000원. 차시별 실험재료비용)

●접수방법 : 도서관 홈페이지 및 전화 선착순 접수

●모집기간 : 2024. 12. 16.(월) 9시부터

●문 의 : 석봉도서관 어린이자료공간(☎608-6288)

2025년 금연클리닉 운영 안내

기간 | 2025. 1. 2.(목) ~ 12. 31.(수)

장 소

- 북부주민건강센터
대덕구 대덕대로 1579, 석봉복합문화센터 1층
-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대덕구 동춘당로 187, 법2동 행정복지센터 5층

※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2024년까지만 운영

운영시간 평일 9시 ~ 18시 / 점심시간(12시~13시), 공휴일 제외

운영방법 사전예약제 ※ 전화예약 필수

운영내용

- 등록 후 6개월간 상담·관리
- 금연 보조제, 행동강화물품 제공
- 3개월·6개월 금연 성공 시 기념품 제공

문의전화

북부주민건강센터 ☎042-608-5477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042-608-5407

지방세 전자송달·자동납부 신청하고 세액공제 받으세요!

하나만 신청 500원 두가지 모두 신청 1,000원

지방세 전자송달이란?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사서함,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송달받는 서비스

신청방법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스캔하세요!

전자송달 신청

자동납부 신청

세액공제 대상

1월	등록면허세(면허분)	6월 / 12월	자동차세
8월	주민세(개인분)	7월 / 9월	재산세

적용시기 신청일의 다음달부터 적용

유의사항

- 지방세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종이고지서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전자고지서는 부과 월에 발송되며 납기가 지난 체납자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계좌 잔액 부족, 신용카드 정보 변경 등으로 자동납부되지 않을 경우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가산세가 포함되어 독촉장이 발송됩니다.
- 모든 지방세는 납부 후 납부취소가 불가합니다.

문의 | 대덕구청 세정과 042-608-6622